

中國共產黨 初期 領導者들과 리더십*

金 東 成

- | | |
|-------------------------|---------------|
| I. 序 論 | IV. 리더십과 黨運營 |
| II. 共產黨 初期 領導者들의 背景과 特性 | V. 리더십結束의 源泉 |
| III. 初期 黨領導者들의 思想的 基盤 | VI. 리더십行態와 經驗 |
| | VII. 結 論 |

I. 序 論

中國共產黨組織과 創黨 그리고 中國에서의 성공적 共產主義革命過程과 그 결과를 논할 때, 이 모든 것을 19세기 중엽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中國에 특유한 社會的 條件의 產物이라는 차원에 분석시각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즉 半封建的, 半植民地的 狀態下의 政治・經濟・社會的 矛盾이 共產黨의 出現을 가져왔고 共產主義運動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면서 역사를 기술해나가는 방법이다.

이와는 달리 같은 역사를 國民黨과 共產黨間의 社會 및 國家의 變革과 回生을 目的으로 한 戰略的・政策的 對立競爭의 過程으로 보면서, 共產主義運動의 교활성 혹은 효율성과 國民黨의 無能을 중심주제로 하여論해나갈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은 中國國民과 조직집단들의 심리적 동기나 價值體系의 變化, 그리고 政治的 葛藤의 결과라는데 초점을 두고 社會科學理論을 적용・분석하여 설명해나갈 수도 있다.¹⁾

* 이 研究는 1986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を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例를들어 Ted Gurr, James Davies와 Harry Eckstein 등에 의한 취합심리적(Aggregate-Psychological)이론; Chalmers Johnson 과

本 研究의 目的은 이러한 上記 研究方法들 중에 하나를 옹호하면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中國의 共產革命을 中國社會의 特殊한 條件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든, 戰略的 우수성에 의한 것으로 보든, 國民의 심리적 동기와 가치체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든 간에 역시 革命運動의 主體는 人間이며 中國革命도 비판적으로 말하면 共產主義者들의 음모와 술수와 폭력에 의한 社會와 政治의 大變革이며 肯定的으로 본다면 그들의 피와 땀의 결정인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共產革命을 논하려 할 때 共產主義運動의 주체였던 共產主義者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共產黨을 이끌어 온 리더들에 대한 철저한 인지와 이해가 앞서야만 하는 것이다.

本 論稿는 이러한 맥락에서 中國初期의 共產主義革命運動을 이끌어 나간 1920 年代의 소위 「黨領導의 人物」들과 리더십의 特徵과 性格, 그리고 黨中央을 중심으로 이들이 취한 態度, 行態 그리고 共產主義運動의 經驗을 모자이크하여 하나의 사진틀 속에 넣어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中國의 革命過程에 뛰어들어 얻은 값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놓은 研究文獻들이 수없이 많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바탕을 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共產主義運動初期의 中共黨領導者들의 社會・教育・思想的 背景을 파악한 후,

- (1) 創黨初期리더들은 어떻게 오직 小數에 의한 리더십을 形成했으면서 黨의 組織・運營의 차원에서의 中國共產黨 特유의 特性을 창출해 내었는가?
- (2) 온갖 한계적인 환경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結束될 수 있었는가?
- (3) 創黨初期에 이들의 코민테른에 대한 態度는 어떠했는가?
- (4)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黨의 組織・管理의 취약성을 극복해 나갔

Edward Tiryankian의 體系・合議(Systems/Value Consensus)理論 ; Charles Tilly의 정치갈등이론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는가?

(5) 1930年代 이후의 성공적 革命活動을 추진시키는데 공헌한 경험적 교훈(例, 리더쉽 테크닉)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特定論題로 한정하여 1920年代, 특히 創黨이후 1927年 國共合作의 결렬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II. 共產黨 初期 領導者들의 背景과 特性

公式的인 中國共產黨史의 저자들은 中共黨의 創黨日字를 1921年 7月로 본다. 그러나 당시 中國內의 마르크스主義研究團體들이 하나의 鬭爭的 政治團體로 변모한 것은 1920年 5月頃부터이다. 당시 上海에서 코민테른 代表 Voitinsky가 陳獨秀를 방문한 후, 陳에 의해 지도된 共產主義그룹은 戴秀陶와 같은 무정부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를 포함한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한 후 11월까지는 극소수의 구성원임에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었다.²⁾ 中國共產黨史는 이 上海조직을 ‘小組’라 부르고 있다. 1920年 가을 이후부터 陳獨秀의 지침하에 上海그룹 외에 北京에 李大釗, 張國燾, 劉仁靜에 의해 공산당세포가 조직되었고, 廣東에서는 陳獨秀가 立憲政府의 교육위원장으로 방문했던 것을 기점으로 譚平山, 陳公博, 包惠僧에 의해, 長沙에서는 毛澤東에 의해, 武漢(湖北南部)에서는 董必武, 陳潭秋에 의해, 濟南에서는 王燾美, 鄧恩銘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陳延年的 지도하에 「社會主義青年團」이, 日本에서는 周佛海등에 의해 각각 단체가 조직되었거나 뜻을 같이하기로 결정했었다.

1921年 7月 中國共產黨創設 第1次 全國代表大會에 참가한 13명의 대표는,³⁾ 여기에도 불참한 프랑스대표를 제외하고, 이들 7個支部의 대표들

2) C. Martin Wilbur & Julie Lien-ying How, *Documents on Communism, Nationalism and Soviet Advisers in China, 1918~1927*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6), p. 48.

3) 13名の 명단; 李漢俊・李達・張國燾・劉仁靜・陳公博・包惠僧・黃必武・陳潭秋・王燾美・鄧恩銘・毛澤東・何叔衡・周佛海.

이었다. 당시에 陳獨秀는 廣東에서 陳炯明을 만나고 있었고, 李大釗는 北京에 있었는데 이들 13名이 대표한 전국공산당원수는 공식기록에 의하면 57명으로서 量的으로 볼 때 하나의 조그마한 秘密結社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규모의 조직이 확산·성장하여 1925年 11月까지는 약 1만 명에 이르고, 1927年 4月 第5全大會까지는 黨員數 58,000명에 黨指導級 120명으로 확산되어나간 것이다.⁴⁾

우선 공산당창당참가대표 13명 중 배경이 정확히 알려진 9명을 보면 日本의 大學에 유학한 자 4명(李漢俊, 李達는 東京大學, 董必武는 日本法政大, 周佛海는 유학중), 北京大學出身 2명(張國燾, 陳公博), 師範學校出身 2명(毛澤東, 陳譚秋), 地方大學教授 1명(何叔衡)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은 당시 中國의 상황에서 볼 때 최고의 知性을 대변하는 지식분자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들은 이미 모두가 個人的으로, 혹은 研究會(예를 들어 北京大學에 1918年 이후에 조직되어진 마르크스主義研究會, 1919年 12月의 社會主義研究會: 李大釗, 陳獨秀, 張國燾, 毛澤東과 瞿秋白 주도하에 약 100여명의 教授와 學生이 참여했었음)를 통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러시아革命에 대해 비교적 해박한 지식울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연령은 董必武(1886), 何叔衡(1874), 李達(1890)을 제외하고는 모두 30歲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이 富農 혹은 地主出身이었다.⁵⁾

한편 創黨代表는 아니나 1925年까지 入黨하여 國民黨조직내에서, 그리고 黨中央 및 各支部와 全國各地에 분포되어 共產黨活動을 지도한 자들 120명과, 1928年 7月까지 入黨을 완료한 후 1936年 현재까지 生存한 94명의 黨지도자들을 종합한 214명에 대한 배경성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

4) Wilbur & How, *Documents*, pp. 319~321과 Lucian Bianco, *Origins of the Chinese Revolution, 1915~1949*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1), pp. 55~56. 여기서 黨指導者란 1925年以前에 入黨하여 黨中央部府, 地域小組, 省 및 主要都市黨, 그리고 青年團體·國民黨內主要職責·軍關係職·大衆組織과 團體에서 各責任을 맡았던 者들을 의미한다.

5) 人物背景에 대해서는 Wilbur & How의 前掲書와 郭革倫主編, 「中共人名錄」(臺北: 國立政治大學術關係研究所, 1967) 附錄 pp. 55~96參照.

6) C. Martin Wilbur, "The Influence of the Past: How the Early Years

教育水準

中國內			
小學以下	24		
古 典	5	海 外	68名
中 等	44	(최소한 1년이상등록교육)	
師範 또는 技術(專門)	32	※ 日・佛・露・他 Europe	
大 學	35	이들 중 11명은 國內大學과 중북	
士官學校	35		
학 보	24		
他혁명사관	4	※ 軍政學校(西安)出身: 習仲勳, 高崗	
他사관	7	敎官: 鄧小平, 劉志丹	
未 詳	39		
總		214名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等教育 미만의 학력보유자는 32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師範學校와 專門學校出身이 32명으로 전체의 15%, 大學出身과 士官學校出身이 각각 35명으로 전체의 16.3%씩을 점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들 黨指導層의 높은 교육배경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등교육을 당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이들 가정배경과 교육열을 추측가능케 한다.

이들 가운데 勞動者階級出身으로는 陳郁, 馮白駒, 向中發, 項英, 徐海東, 關向應, 李見珍, 羅登賢, 譚震林, 唐亮, 鄧華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했고, 商業階層出身으로는 張大雷, 陳士渠, 方方, 林彪, 羅榮桓, 鄧子恢, 葉劍英 등 7명 정도이며, 官吏 및 鄉紳出身으로 陳毅, 陳獨秀, 李立三, 李維漢, 鄧仲夏, 蔡暢, 蔡和森, 輝代英 등 14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農業階層出身인데 이들 중 貧農 혹은 中農出身과 富農 혹은 地主出身의 兩階層이 거의 비슷한 수를 점하고 있다. 요약하면 절대다수가 中農이상 비

Helped to Shape the Futur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Party Leadership and Revolutionary Power in China*, ed., by John Wilson Lewis (Oxford; Cambridge Univ. Press, 1970), pp. 63~68에 기초함.

교적 안정된 生活基盤을 가진 가정출신이라는 것이다.⁷⁾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個人的인 社會價値의 박탈에 따른 보상의 요구로서의 革命運動에 참여하기 보다는, 參與가 그들이 생각하는 理想과 正義實現이라는 社會觀의 결과라는 가설의 설정을 가능케 한다.

이들의 연명분포를 보면 확인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할 때 1925年을 기준으로 하여 45歲이상은 4명에 불과하고(陳獨秀, 何叔衡, 徐特立, 吳玉章), 40歲전후가 7명, 35歲전후가 12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이보다 젊거나 더 나아가 20歲 정도에 불과한 청년들(50명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⁸⁾

한편 이들 20年代 黨의 지도층들은 1925年 현재 20歲 정도였던 전체의 약 1/4을 제외하고는 黨에 정식입당하기 전부터, 例를 들어, 마르크스主義研究會에 참여하였었거나, 社會主義青年團에 참가했거나, 5.4運動에 직접참가한 경험을 가졌거나, 직접적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으나 1910年代末부터 발간·회람된 각종 이념출판물 등을 탐독해온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비록 이념체계에서 정통적 이론가수준에는 설령 못미쳤다 하더라도 黨中央리더들의 理論的 專門性, 그리고 學問的 및 指導的 權威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정하고 때로는 거부할만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黨中央과 떨어진 체 제각기 書信指令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었음에도 中央의 지침을 충실히 추종해나간 것을 설명하는 人物的 背景이 되며, 후술하게되는 黨리더들의 黨內民主主義를 가능케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Ⅲ. 初期 黨領導者들의 思想的 基盤

黨을 領導했던 人物들의 思想을 형성한 基盤이 무엇이었는지를 광의적

7) 吳鎮龍, “1920年代 中國共產黨人物考” 「中國研究」, Vol. 2, 檀國大學校 中國研究所, 1980, p. 67~85에 본 稿의 分類와는 다르나 이부분 同一參照.

8) *Ibid.* 한편 Bianco는 1925年 5.30事件 당시 학생이 전체일반黨員의 90%를 점했었는데 同年 11월에 이르러서는 전체의 35%에 불과하게 되고 나머지는 勞動者출신이었다고 한다. Lucian Bianco, 前揭書, p. 56.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면 이들의 교육적 그리고 社會的 背景을 감안할 때, 中國의 傳統으로부터 新文化, 自由主義思想으로부터 急進主義思想, 다윈에서 톨스토이를 거쳐 존 듀이, 윌슨의 民族自決主義로부터 레닌의 帝國主義, 洋務運動으로부터 5.4運動 등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의 끝까지 수많은 길을 달려가 보아야 다시 領導人物들 개개인의 성장환경 및 개성 등과 밀접히 관계되는 것이라 이를 단순하게 요약한다는 것은 결국 分析者의 주관에 의한 類推作業에 불과한 것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의 思想이란 말을 中國에서의 共產主義革命運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思考와 行動의 기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 체계로서의 共產主義觀으로 압축코자 한다. 물론 이 共產主義觀은 결국 마르크스主義와 레닌主義가 되겠으나, 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이해하고 中國이라는 現實狀況에 적용하는데는 이들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代表的 領導人物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집필하고 주장한 論調, 그리고 戰略的 構想과 政策遂行過程에서 나타났던 可視的 行態에 중심을 두고 分類・要約해 보려 한다.

우선 가장 대표적 인물로는 陳獨秀와 李大釗이다. 陳獨秀와 李大釗가 革命運動의 組織의 次元에서 동지가 된 것은 1917년에 陳獨秀가 주도하는 「新青年」의 편집자로 李大釗가 참여함으로써 이다. 일년 후 陳獨秀는 李大釗를 北京大學에 재직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후 두 사람은 中國近代史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5.4運動을 발발시킨 北京大學을 중심으로 한 知性的 雰圍氣를 형성시키는데 보조를 같이 했다. 陳과 李는 모두가 中國의 傳統的 價値를 배격하고 西歐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理想을 찾으려 했다는데 공통점을 지녔으며, 따라서 中國의 社會와 政治에 관한 未來理想을 그리는데 있어서 兩者는 거의 같은 知的 眺望과 믿음을 가졌었다.

그러나 新中國을 回生시키기 위한 共產革命을 수행하는 戰略的・行動的 측면에 대한 兩마르크스主義者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으며, 비록 1926년까지 陳獨秀에 의해 黨中央이 領導되고 初期 黨리더들은 陳을 ‘家長’의 存在

로 인정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나머지 黨리더들의 기본적 조망을 크게 兩大山脈위에서 形成하게 하기에 족했다. 陳獨秀는 그의 「愛國心과 主體心」이라는 논문(1915年)에서 진정한 獨立民族國家로서의 新中國을 건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主體心」인데 그는 이 「主體心」을 교육과 진화론적 과정이며 愛國心과 같은 감정적 차원이 아닌 特定 社會·政治的 諸般問題에 관한 知識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⁹⁾ 이 당시 이를 반박하며, 李大釗은 그의 「염세심과 주체심」이라는 논문(1915年)을 통해 「主體心」은 자신을 둘러싼 政治·社會的 狀況을 변경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목적의식을 지닐 때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陳獨秀와 달리 愛國心(즉 民族主義)의 政治的 活用을 주장한 바 있다.¹⁰⁾

따라서 이 대립되는 입장은 후일 陳獨秀는 마르크스主義를 일반적으로 正統理論的이며 決定論的 次元에서 이해하면서 正統마르크시즘에 의한 國際的 次元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을 높게 평가하고 지도한 반면, 李大釗은 政治的 行動主義와 民族主義的 충동에 의존한 主志主義(Voluntarism)를 높이 사고 지도해나가게 된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大釗은 1918年 이후부터 마르크스主義研究會와 社會主義研究會를 비밀히 조직하여 나가면서 마르크시즘을 학생들에게 설파하였었는데, 北京大學圖書館의 李의 研究室은 후일 「5·4運動」을 주도한 각종 급진주의적 학생그룹의 회합장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研究會에는 한때 100여명이상이 참여했었으며 후일 共產黨을 이끌어 나갈 張國燾, 毛澤東(毛는 李의 도서관보조자로서 1918~1919年 근무), 瞿秋白 등 수많은 學生·知識人이 참여했었다. 이 당시 李大釗은 中國의 급진적 지식인들의 政治的 孤

9)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Intellectual Prerequisites for the Maoist Strategy of Revolution," in *Revolutionary Leaders of Modern China*, ed. by, Chün-tu Hsüeh,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1), pp. 367~368.

10) *Ibid.*, pp. 368~370.

立과 無氣力문제를 잘파하면서, 이들이 人民大衆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음을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라고 생각했다. 李는 또한 1919年初 中共의 革命은 農民革命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우리 中國은 농경국가이며 지배적인 勞動階級은 農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 민족은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¹¹⁾

그런데 李大釗은 1919년에 마르크스歷史理論의 결정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측면에 대한 지지에 유보의 뜻을 표하며 唯物史觀은 倫理的·精神的 要素에 대해 충분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¹²⁾ 결국 李는 마르크스의 決定論의 處方과 자기의 主志主義的·行動主義的 世界觀의 조화단이 中國革命의 捷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李大釗의 이러한 農民의 重要性에 대한 강조와 主志主義 및 行動主義는 특히 후일 毛澤東의 革命戰略構成의 知的·理念的 基盤이 되었음은 상식문제가 되어 있다.

한편 李大釗은 1920年代初 코민테른에 의해 國共合作이 추진될 때 中共黨리더 중 최초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었는데, 이때 또한 李는 코민테른이나 陳獨秀를 비롯한 黨中央과는 다른 각도에서 “國民革命(民族革命)”의 目的과 性格에 대해 이해하였었다. 李는 中國의 資本主義보다는 國際資本主義가 主敵이기에 革命鬭爭을 中國의 프롤레타리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全社會階級을 망라한 全人民的 次元에서 전개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의 “國民革命”을 보편적 社會·政治的 發展企劃中 하나의 따로 분리된 特定段階로 단순히 보아서는 안되며 國民黨과의 合作 또한 目前的 革命的 目標을 겨냥한 단순한 戰術的 措置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李大釗은 中國의 “國民革命”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는 資本主義的 帝國主義에 대항하는 中國民族主義構成勢力의 봉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은 임박한 世界革命, 즉 세계적 변혁과정에서 하나의 民族으로

11) 李大釗, “青年與農村”, 「李大釗選集」(北京: 1958), pp. 146~150.

12) 李大釗, “우리의 마르크스主義觀”, 「新青年」, Vol. VI, No. 5 (May 1, 1919), p. 536.

서 극히 중요하고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³⁾

그러나李大釗은 1925年末부터 北京地區의 國民黨保守派(極右派)에 의한 反共試圖에 따라 國共合作의 주장을 철회하고, 결국 都市프롤레타리아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다시 農村으로 눈을 돌려 革命勢力으로서의 農民의 잠재력을 찾게 된다.

李大釗의 이러한 이론적·전략적 특징에 반하여 陳獨秀는 그가 西歐民主主義신봉자로부터 共產主義者로 전향한 초기에서부터 고전적 마르크스主義추종자적 경향을 가졌었다. 그도 그럴 것이 陳獨秀가 사회주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것은 5·4運動후이며 1919年 12月까지도 자신이 확고한 마르크스-레닌의 신봉자임을 자처하지 않았었다. 그 후인 1920年 5月李大釗의 소개로 코민테른代表 Voitinsky를 만나고 帝國主義와 封建主義에 대항하여 싸운다는 코민테른의 처방이 당시 계속되는 西歐의 侵略과 擄取, 國內軍閥들의 內戰 등에 협조를 갖고 사회주의자로 전향해가고 있던 陳을 사로잡은 것이며,¹⁴⁾ 이때부터 공식적인 創黨作業에 들어갔다.

陳獨秀가 共產主義者로 전향한 초기의 사상체제는 정통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틀 속에서 정리된다. 陳은 “資本主義體制를 반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억압받는 勞動者階級을 통일시켜 國家事務를 처리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만들고 法과 政治 및 他 制度를 통제함으로써 資本家階級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¹⁵⁾ 또한 레닌의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고¹⁶⁾ 이에 반대하는 독일사회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런데 陳獨秀는李大釗와는 달리, 처음부터 國共合作에 대한 코민테른의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兩黨間의 대등한 연합이 아니고 共產黨員이 國民黨員으로 가입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일단 이 政策이

13) 李大釗, “마르크스의 中國民族革命觀”, 「李大釗選集」, pp. 545~555.

14) 張國燾, 「明報月刊」, 1. No. 5 (1966. 5), p. 65.

15) 陳獨秀, “談政治”, 「新青年」, 8. 1 : pp. 5~6 (1920. 9. 1); Thomas Ouó Chén *Tu-Hsiu and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N.J.: Seton Hall Univ. Press, 1975)에서 再引用.

16) *Ibid.*

채택되자(3全大會) 陳은 黨總書記로서 左·右派의 見解를 조정하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갔다. 그런데도 후일 1927년에 가서는 코민테른의 中國革命政策의 실패에 대한 속죄양이 되어 黨에서 축출되었다. 國共合作下에서 陳은 현존투쟁을 國民·民主革命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中國의 프롤레타리아와 農民은 독립적 혁명세력이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적 부르조아지와 小부르조아지, 그리고 지식층과 노동자를 바탕으로 하는 國民黨과의 행동통일을 촉구하는 코민테른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陳은 中國國民革命은 부르조아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⁷⁾ 또 한편 陳은 농촌지역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의 필요와 가능성은 農業의 資本主義화와 農村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집중이 이루어진 후에야만 생기는 것이라 하여 段階的 革命論을 선호하였다.¹⁸⁾

그러나 陳獨秀는 비록 코민테른의 國共合作政策에 철저히 승복한 셈이 되었으나, 社會的 階級이란 합병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合作이란 합병과 다른 것이라 믿었고, 결국 社會主義段階間 國民革命이후에 프롤레타리아가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라는데 대한 믿음에는 시종 변함이 없었다.

이상 陳獨秀와 李大釗의 思想體系를 간단히 비교해보았다. 中共黨 創設 이후 1927년까지 共產黨中央의 決定過程에 직접 참여하면서 꾸준히 독자적이고 논쟁적 發言을 해온 1920年代 領導人物들중의 리더를 筆者의 主觀的 觀點에서 뽑아서 최소한으로 그 數를 좁혀 보아도 陳獨秀, 李大釗, 張國燾, 毛澤東, 蔡和森, 瞿秋白, 李立三 등 약 7名 정도가 된다.¹⁹⁾

17) Yü-ju Chih, "ChénTu-hsiu: His Career and Political Ideas," in *Revolutionary Leaders of Modern China*(前掲書), pp. 362~363.

18) *Ibid.*, p. 363.

19) 陳獨秀와 李大釗 외에

張國燾: 創黨大會(1921年)의 4人執行委의 一員으로 조직 및 노동운동총책 맡음

二全大會(1922年)의 5人中央委의 一員

三全大會(1923年)에서 國共合作反對로 中央委 탈락

四全大會(1925年) 이후: 노동운동부와 軍事部部長

이들은 예를 들어 國共合作問題, 對國民黨戰略問題, 勞動運動問題, 프롤레타리아와 農民勢力的 活用に 관한 問題 등 國共合作期間에서의 問題와 1927年 일련의 暴動主動過程에서 見解의 差異를 보이면서 陳獨秀의 黨中央運營에 가장 깊이 참여한 者들이다. 만일 創黨初期 리더쉽의 思想體系라 부른다면 陳獨秀와 李大釗 그리고 이들의 思想體系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思想的 基盤(革命理論에 관련된)이 前述한 바와 같이 陳獨秀와 李大釗의 兩大 理論의 줄기와 對立될 만한 理論體系를 形成・主張케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1920年代를 통틀어 가장 論爭적이었던 張國燾의 경우, 5·4運動 당시 北京大學의 광열적 愛國主義學生중에 속하던 자로, 陳獨秀의 弟子이면서 李大釗의 研究室에서 마르크스研究에 참가하여 共產主義思想을 익힌 者다. 따라서 陳과 李의 思想이 張의 思想的 基盤이 되었고, 그가 후일 黨中央에서 벌인 討論의 主題는 國共合作에 관한 戰術問題, 國共合作下에서 共產黨의 獨自의 發展과 共產黨主導 勞動運動의 重要性, 코민테른과의 關係에서 主體性問題, 共產黨 獨自의 軍隊의 必要性 問題 등 政策的 問題에 관한 것들임을 발견하게 된다.²⁰⁾

張國燾와 北京大學 동창이며 러시아에 건너가 1年반 남짓 유학하고 돌아온 瞿秋白의 경우도 그의 青年學生기에 思想形成過程은 張國燾와 유사하다. 그러나 張國燾와 다른 특징은 瞿의 경우는 李大釗의 影響을 받아서 革命勢力으로서의 農民의 重要性을 인정하고,²¹⁾ 陳獨秀의 國民革命단계 및

五大大會(1927年) 7人 政治局員중 一人

毛澤東: 創黨大會 代表, 三大大會 中央委員, 湖南省小組 總責

蔡和森: 二, 三, 四大大會 中央委員, 五大大會(1927年 5月) 政治局員

瞿秋白: 三大大會・四大大會 中央委員, 五大大會 政治局員

27年 8月~28年 7月 실질적 黨總書記

李立三: 1926年 張國燾로부터 勞動運動總責職 引受, 五大大會 政治局員

1928年~1930年 實제적 黨 中央指導者

20) Chün-tu Hsüch, ed., 前掲書, pp. 422~454.

21) 瞿秋白은 “北京大虐殺國民革命의 앞날”(「新青年」, I : 19 <1926.5>)이란 글에서 中國農民은 “大革命勢力”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獨裁에 대하여 따르면서도, 陳獨秀에 비해 과격한 定向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즉 瞿는 프롤레타리아가 國民革命의 영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며, 革命鬭爭은 外國의 帝國主義와 中國內 資本家를 同時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土地革命과 買辦資本家 타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총봉기가 성공하려면 농촌봉기를 위한 指揮基地役割을 할 수 있는 大都市에서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으며,²²⁾ 이러한 그의 생각은 1927年 12月 廣州暴動을 主導하여 참담한 패배를 가져오게 하였다. 共產黨史는 그를 「育動主義者」라 칭한다.

한편 毛澤東의 경우도 創黨初期에는 李大釗과 陳獨秀의 理論體系를 학습한 외에 별다른 獨自의인 思想的·理論的 體系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李大釗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그는 1923年의 3全大會에서 中國革命에 있어서의 農民의 役割에 관한 問題를 討論主題로 提案하였기는 하나, 하나의 理論體系로 農民의 革命的 役割에 대해 執筆한 것은 1925年 이후 廣東省 東部에서 農民運動講習所를 운영하면서 얻은 知識을 바탕으로 하여, 1927年 湖南에 파견되어 活動후에 쓴 「湖南農民運動觀察報告」가 그 처음이다. 黨初期에 毛澤東은 理論과 實踐 側面에서 陳獨秀와 李大釗에 맞선 주장을 함이 없이 黨中央을 묵묵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蔡和森은 中道の 人物로서 특이한 思想的 論爭에 끼어들이 없이 2全大會 이후 5全大會까지 陳獨秀아래의 黨中央最高決定機構(中央委와 政治局)멤버로 일관한 유일한 指導者다. 그는 陳獨秀의 信任을 얻었고, 長沙出身으로 毛澤東과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에 유학했었기에 李立三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이는 그의 思想과 行動이 正統마르크스-레닌主義를 지향하면서도 모가 나지 않았음을 立證한다.

마지막으로 李立三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는 1919年 留法儉工計劃에 참가하여 프랑스로 가서 留學했고, 中國人學生들의 社會主義研究를 위한 모

22) 瞿秋白, “中國革命中爭論問題”(中共黨: 1927), p. 84 in *Chinese Political Thought in the Twentieth Century*, by Chester Tan (N.Y.: Doubleday & Co., 1971)에서 再引用.

임을 만든 經驗, 그리고 歸國後 張國燾 밑에서 勞動運動을 했던 경험 등을 종합할 때 비교적 正統마르크스主義에 충실한 思想的 定向을 가졌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그의 時代 사람들이 그를 “거칠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라고 한 점,²³⁾ 그리고 1927年 南昌暴動時 온건적이고 조심스러운 동료들을 批判한 점, 反動分子와 부유한 鄉紳에 대해 공포정치를 革命的 필수조건으로 보면서 후일 이 공포정치를 시행치 않은 것을 후회한 점, 그리고 陳獨秀의 右派機會主義를 신랄히 비판하며 瞿秋白을 옹호한 점 등²⁴⁾을 고려할 때 瞿秋白의 思想的 定向과 매우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各 領導人物들의 思想的 特性研究를 종합해 볼 때, 최소한 1927年 以前 陳獨秀가 黨을 이끌어 나갈 때 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陳獨秀, 李大釗의 理論體系下에서 狀況에 따른 政策的 眺望의 차이를 나타냈을 뿐으로 陳·李 兩者에 의한 權威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 같으며 이는 또한 하나의 리더십의 결속요인이 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戰略的 眺望의 차이가 결국은 1930年代에 들어서서 특히 毛澤東의 리더십에 의한 中國의인 革命戰略의 開發을 위한 하나의 歷史的 源泉이 되었음을否認할 수 없다.

Ⅳ. 리더십과 黨運營

이상 1920年代 中國共產主義運動을 이끌어 나간 黨領導者들의 社會·教育的 背景과 知的 바탕, 즉 理念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들 黨領導者들은 共產黨이라는 政治組織體系의 次元에서 어떠한 자세와 行爲패턴을 보였으며, 이들의 역할이 당시의 黨의 興亡과 후일의 共產革命過程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中共人들이 말하는 교훈은 어떠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3) Chester Tan, 前掲書, p. 250.

24) *Ibid.*, p. 250.

조직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中國共產黨의 1920年代 全般的 特性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련의 모델에 따른 코민테른의 지시하에서 종속적인 양태를 보였었음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러나 創黨時부터 코민테른(Voitinsky와 후일 Marling)의 관여가 권고적 차원에서 있었기는 하나 中共黨創黨이 코민테른의 창작물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張國燾의 회고에 의하면 1920年 여름에 급진주의 청년 王惠吾와 李達과 함께 陳獨秀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이미 陳은 共產黨組織구상을 상의했었고, 그 후 黨의 강령을 초안하는 과정에서도 主體的 觀點을 부각시켜 나가곤 하였다 한다. 즉 陳獨秀와 그의 上海小組는 프롤레타리아階級에게는 국경이 없다는 마르크스의 서약을 즉각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고, 프롤레타리아와 民族主義者 그리고 國民革命 間에 얽혀있는 복합적 관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결정하지를 않았었다는 것이다.²⁵⁾

또한 陳은 강력한 中央集權的 黨體制(소련모델 지칭)를 一人獨裁 및 官僚化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좋아하지 않았으며, 黨運營은 小規模 단체조직의 활동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다.²⁶⁾ 당시의 陳獨秀와 上海小組의 입장은 결국 中國的 狀況에서 스스로 자각한 목표인 中國社會의 변혁을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혁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1921年 7月 共產黨 1全大會에서의 合意한 결정인 中國共產黨 第1次 綱領을 보면 당원의 명단, 당원의 목적과 원칙, 당의 구조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당시 소련의 모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²⁷⁾

또한 共產黨의 創黨에 참여한 자들은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최고의 知識人·青年·小長層들이었다. 이들은 中國

25) 張國燾, 「明報月刊」, I.No.5 (1966.5), pp.67~68.

26) *Ibid.*, p.70.

27) 이 綱領의 내용은 陳公博의 Columbia 大學院 碩士論文에 수록됨. C. Martin Wilbur, ed., *The Communist Movement in China* (陳公博論文), (N.Y.: Ontagon Book, 1966), pp.102~105.

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명료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누구나가 中國의 政治・社會・經濟體系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자칭 애국적이고 民族主義의인 정열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中國의 變革을 가능케 할 엘리트들은 결집되지 못한 채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들 지식인은 共產黨 創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 情緒的 安定과 知的 確信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共產黨은 그 창립초기부터 이들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심리적인 聖域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初期共產主義者들과의 심리적 유대는 黨의 조직관리라는 차원에서 他國과는 색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黨員과 黨리더들에게 있어서 黨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구조로서 존재가 가능한 것이었고, 강력한 中央集權의 黨裝置의 不在와 관리제도의 허술함 속에서도 黨리더들은 자신들을 黨에다 결속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初期 黨리더들은 이러한 추상화된 黨의 존재와 구조를 존속시켜 나가는데 있어서의 취약점을 갖가지 테크닉에 의해 보완시켜 나가려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共產黨은 小數로 형성된 리더쉽구조에 의하여 (최소한 1925년까지는) 유지되어졌고, 또한 유지될 수 있었던 것과 관련된 문제로, 初期리더들은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量的 멤버쉽보다는 質的인 리더쉽을 선호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上海에서 小組의 결성후 中國各地에서 黨組織運動을 전개할 때 陳獨秀가 작성한 몇가지 試案과, 그 후 黨 1全大會에서의 黨활동강령에 명시된 것을 보면 (1) 잡지와 선전책자의 발간을 통한 共產黨의 理論과 實際를 번역할 것, (2) 勞働者組合을 조직할 것, (3) 青年黨員의 組織과 訓練機關을 설치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²⁸⁾ 이후 中共黨은 黨의 공식기관지로서의 「新青年」, 그리고 上海, 北京, 武漢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勞働週刊」, 그리고 毛澤東에 의한 長沙의 「湘江評論」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활발히 펴 나갔다. 勞働組合의 결성사업 또한 張國

28) 張國燾, 「明報月刊」, I. No. 5 (1966.5), p. 67과 陳公博의 論文(C.M. Wilbur, ed.) 參照.

蕭・劉少奇 등의 주도하에 上海를 중심으로 하여 진척되었고, 北京, 武漢, 長沙, 廣東에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1921 年末부터 社會主義青年團을 재 조직하고 이를 전국도시에 확대시킨 후 1922 年 5 월에 15 개 도시대표의 社會主義青年團代表會議을 개최했다. 특히 1922 年 5 월에 개최한 中華全國總工會에는 1 백여개 이상의 조합과 20 여만명의 노동자가 가입된 12 개 도시대표 162 명이 참석했었고 共產黨員인 譚平山이 대회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대회에서는 「反帝」와 「反軍閥」 외에 「中國共產黨萬歲」의 슬로건이 내세워질 정도였다.²⁹⁾ 그런데 이렇듯 활발한 黨活動을 전개하여 나갔음에도 共產黨에 黨員으로 정식 인정된 수는 1925 年 4 月까지는 1 천명이 훨씬 못미치는 매우 소수임이 드러나 있다.³⁰⁾ 이러한 소수중심의 黨員에 의한 黨組織이 당시의 狀況의 產物(관현의 압력때문에 운동가들이 定規 黨員이 되기를 기피한 것)인지 혹은 黨中央이 레닌의 前衛黨組織모형을 옹호한 결과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술한 바 처럼 陳獨秀를 중심으로 한 初期리더들은 강력한 中央集權의인 黨裝置를 통한 전국적 운동의 총괄과 전개보다는 地域別・團體別 活動을 선호하였고, 기존당원의 양질의 리더십이 결국 프롤레타리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黨 1 全大會에 참석하지 못한 陳獨秀는 陳公博을 대회장으로 보내서 黨綱領초안을 토론토록 했을 때 (1) 黨員教育의 필요성, (2) 黨運營의 民主的 方式, (3) 黨訓練의 發展, (4) 民衆을 共產主義者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심스런 접근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³¹⁾ 이는 얼마나 黨員의 質의 次元을 중시했는가를 시사하는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小數情銳主義的 리더십의 충원은 1925 年 이후 黨의 主要問題로 부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1925 年 「5・30 事件」 이후 黨員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黨은 리더십要員의 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서 리

29) 胡華, 「中國革命史講義」(北京: 人民大學, 1962), pp. 58~59.

30) Wilbur & How 의 집계에 의하면 1920~1925 年에 1000 名 이내라 한다. Wilbur, 前掲書, p. 42.

31) Wilbur & How, Documents, p. 52.

더쉽要員이라 함은 黨事務, 青年團體 그리고 黨에 의해 주도되는 大衆團體의 조직과 운용을 위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黨員을 의미한다. 1926年 7月の 黨中央委全體會議에서의 논의를 보면 당시의 地域黨事務, 地方 및 地區委員會의 일, 그리고 特別黨細包를 위해 필요한 要員이 최소한 355명이 필요함에도, 120명밖에 확충되어있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同中央委는 “이러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要員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V. 리더십結束의 源泉

共產主義組織의 結成과 創黨은 共產主義를 불법시한 狀況의 條件下에서 어렵게 시작된 후 그야말로 共產黨은 연속적인 위기 속에서 상황조건에 적응하거나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개변시켜 성장해 나갔다. 國共合作 이후 國民黨指導體制下에서도 共產黨리더들은 國民黨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左派勢力과 제휴하며 黨勢를 확장해 나갔고 1925年 장개석에 의한 反共政策과 토벌에 당면해서도 리더십의 질적인 측면에서 와해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1920年代 共產主義活動은 黨中央이 소재한 上海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된 전국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黨中央의 통제와 지시하에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운 정도의 통합성을 보였다. 교통과 통신이 아직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또한 黨中央의 통합적 人的·物的 資源의 지원이 없이 각 지역의 共產黨組織은 생존·성장해 나갔다. 비록 1920年代末에 이르러 共產黨勢力은 참담한 패배에 따른 전멸상태에 이르렀기는 했으나 이 또한 共產黨의 組織 및 黨員의 군열과 信念體系의 붕괴에 따른 自體內的 瓦解라기 보다는 코민테른에 의한 黨中央의 戰略的 失敗에 연유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共產黨의 생존과 성장을 가져오게 한 리더십의 결

32) *Ibid.*, p. 115.

속, 즉 黨리더들의 革命目標下의 統合은,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한 것일까?

전술한 바와 같이 共產黨 初期리더들은 知識人들이었으며 대부분이 中國의 전통문화와 규범을 배경하면서 民族主義觀에 따른 反帝國主義를 주장하고 기존 社會의 變革을 원하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막연하게나마 理想的인 社會를 꿈꾸고 또한 그러한 社會가 자기들의 노력에 따라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하기에 당시 中國의 現實은 이들에게 불안과 좌절 그리고 투쟁적 성향을 심어주기에 족했고 이들은 심리적 갈등에 얽매어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에서 이들은 비밀조직을 통하여 온갖 급진주의 이념에 접하게 되었고, 그 중 마르크스主義에 가까와져 간 것이다. 결국 그들에게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며 이들에게 심리적 彼岸處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였고, 社會變革의 實現可能性을 증명해주는 것인 양 나타나서 이들의 투쟁적 성향을 부채질한 것이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이었다. 따라서 일단 黨結束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데올로기였다고 정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듯 이데올로기가 젊은 지식층에게 심리적 彼岸處를 제공하고 투쟁적 성향을 해소하여 준다고 하여 이들이 共產主義運動을 전개하는데 지속적인 결속을 가져오게 하였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理論과 現實의 괴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價值와 思想的 轉換可能性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 원천에 덧붙여 또 다른 해답을 구해야만 한다. 그 해답이 결국 共產黨리더십에 의해 創黨初期부터 강조되어 온 黨活動의 指針과 黨規律, 그리고 黨리더의 經驗이 될 것이다.

小數로 구성된 共產黨 初期리더십은 1全大會의 결정에서부터 각자가 대표하는 地域에서 團體의 組織과 指導, 그리고 이들 組織과 大衆에 대한 선전을 효율적으로 행하도록 의무지워졌다. 따라서 이들은 組織 및 선전기술을 개발·습득해야 하였고, 그 기술의 社會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모두가 최소한 組織, 宣傳 혹은 武力利用에서 전문가가 되어간 것이다. 이들은 中國社會의 現實 구석구석(자신들이 성장

배경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던 실상)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도식에 우선 맞춰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며, 각종 組織과 大衆을 조작·지도하고 黨員을 충원하고 대중적 지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革命運動의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긍지를 갖고, 同僚리더의 자질을 신뢰하고 黨리더집단체의 통합성을 높이 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으로, 初期 共產黨리더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과 徒弟指針이 또한 共產黨리더십의 성공적 결속과 조율성을 유지해준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20年代 初에 中國共產黨 모스크바支部가 마련·시행한 「未來의 黨리더」訓練指針(총 34개항)의 내용중 한 부분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순수한 革命的 人生哲學을 기르고 自意識에 바탕을 둔 훈련을 하며,階級的 바탕 위에 굳게 서서무정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배격한다. 만일 우리가 鐵則을 어긴다면, 부르조아지로 하여금 프롤레타리아의 革命的 組織을 파괴하도록 돕는 것이 된다. 共產主義者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쟁취투쟁을 위해서 언제나 기꺼이 ‘肝에 붙어 쓸개맛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大衆을 향하여 우리의 生命과 의지를 집단화하고 적응시켜야만 한다. 私生活이라든가 私의 自由意志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同志들의 過誤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는 동시에 同志들의 批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組織의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우리 共產主義構成員들은 혁명과 무관한 他 職業을 갖지 않는다.우리는 職業革命家들이다.”³³⁾

共產主義者후보들은 이렇듯 엄격한 規律과 倫理觀下에 훈련되어졌으며 스스로 자기교육토록 유도되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創黨리더들에 뒤따라 黨活動을 주도해나간 후속 黨리더십이 시간의 흐름속에서 쇠퇴하기는 커녕 더욱 열성적이 되고 결속감을 갖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Ⅵ. 리더십行態와 經驗

Wilbur教授는 國共合作 이후 1920年代 후반의 中共黨이 코민테른의 지

33) Wilbur & How, *Documents*, pp.135~137.

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의 中共黨이 자체의 戰略・戰術을 개발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었고, 스스로 사회환경에 적응하여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³⁴⁾ 소련이 코민테른의 또 다른 대표로 마링을 중국에 추가로 파견한 것은 1921년 봄이다. 黨 1全大會에서 마링의 역할은 미미했었으나 일단 黨大會가 끝난 후 代表들이 각각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러 上海를 떠난 후부터 두각을 나타낸다. 마링은 張國燾가 새로이 勞動組合局설치의 책임을 맡게된 것을 기회로 張에게 黨의 활동을 위한 黨員의 個人經費까지를 지원할 것을 계의했고 張은 이에 동조하게 된다. 당시 黨中央이 위치한 上海에는 書記長인 陳獨秀가 不在中이었고 副書記 周佛海, 宣傳責 李達, 組織責 張國燾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코민테른의 재정적 지원체의 문제때문에 이들은 격론을 벌이고 대립하게 된다. 8月 중순 上海에 돌아온 陳獨秀는 中國革命은 중국인 스스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黨員은 黨을 위해 마땅히 자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인 바 中國革命을 위해 코민테른의 직접적 후원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³⁵⁾ 그러나 며칠 후 마링은 陳에게 中共黨은 中國命을 수행하는데 全權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코민테른의 대표는 오직 中共黨과 코민테른 간의 교량역할을 할 뿐임을 밝힌다. 이에 따라 陳獨秀는 코민테른이 제공하는 재정적 원조를 받기로 하였던 것이다.³⁶⁾

결국 陳獨秀와 黨리더들도 코민테른의 재정적 지원없이 黨의 과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함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마링은 孫中山과 접촉을 시도하여 國共合作에 대한 一次的 合議를 얻어내었던 것이며, 國共合作이 결정되고나자 共產黨은 더욱 자신의 혁명적 이익과 활동을 위해 코민테른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코민테른과의 유대시작 때는 코민테른의 강력한 압력이나 당시의 黨리더들의 非主體的意識(예 : 외세의존적)의 결과로 보기는 힘이 들며 오히려 中共指導層의 자

34) C. Martin Wilbur, 前掲書, pp. 38~39.

35) 張國燾, 「明報月刊」, I. No. 6, pp. 72~73.

36) *Ibid.*, pp. 72~73.

발적 필요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中共黨리더들의 初期姿勢는 1923年 6月 國共合作決定過程에서도 반영이 된다. 國共合作의 내용은 물론 제 2차 코민테른대회에서 레닌이 제시한 半殖民地國家에서의 革命戰略, 즉 民族解放運動(기본적으로 부르조아리더십에 의한)이 革命 第2段階인 社會主義革命을 위한 前哨段階가 되어야 한다는 戰略을 채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당시 黨 3全大會에 대표로 참가한 전당원 432명을 대표한 30명의 國共合作을 결의하기 전에 벌인 토론과정을 보면, 레닌과 코민테른의 權威와 理論에 맹목적인 추종을 하였다는 인상은 전혀 안보인다. 당시 陳獨秀는 共產黨을 國民黨에 합병시키자는 「右派」를 대표했고, 張國燾는 國共合作에 반대하다가 최소한 노동자·농민조직은 공산당 깃발하에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左派」를 대변했다. 毛澤東은 國民黨이 농민을 지배하게 됨을 원치 않았다고 하며, 李大釗은 전술한 바와 같이 國民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을 동일시하며 國共合作을 주장했다. 여기에다 瞿秋白은 陳을 지지했는가 하면, 당시 蔡和森·毛澤東은 瞿와 프롤레타리아階級の 革命主導權에 관련된 문제로 맞서기도 했다.³⁷⁾ 결국 이 3全大會에서 國共合作은 가까스로 극소수의 標差로 통과되었는데, 당시 代表의 한 사람이었던 劉仁靜은 당시 대표들이 國共合作決定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 이유와 戰略的 姿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우리들 [中共黨리더들]은 國民革命黨內的 많은 勞動組織員들에게 선전하여 그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기를 원한다. 둘째, ……우리는 大衆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직과 선전수단을 동원하여 이 黨[國民黨]과 경쟁하려 한다. 만일 우리가 合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립될 것이다. 숭고한 이념인데도 大衆들이 따르고 있지 않고 있는 공산주의를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國民黨에 가입한다면 우리는 대중들에게 우리 또한 革命的 民主主義(國民革命)를 원하고 있음을 大衆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革命的 民主主

37) 張國燾, 「明報月刊」, I. No. 10, pp. 75~79와 何幹之, 「中國現代革命史」(香港: 三聯書店, 1958), pp. 49~52.

義[國民革命]는 目的[社會主義革命]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 우리는 大衆들을 우리 편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國民黨을 분열시킬 것이다”³⁸⁾

이러한 史料들에 입각해 볼 때, 이 당시까지 黨리더들은 革命遂行에 있어 리더들 각자의 소신과 리더쉽전체로서 中國의 狀況에 맞다고 생각하는 주체적 관점에서 戰略論議를 진행시켰고 國共合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일(1927~1928) 스탈린에 의한 지령이 國民黨중심적이 되었거나, 黨리더들의 政策決定過程에의 인풋-롤(input role)을 제어해버리는 상황까지 물고 갔다. 이러한 결과는 1927年 일련의 폭동실패로 공산당의 와해를 물고왔고, 그 후 1930年代의 共產黨은 이 당시의 경험을 중시하여 코민테른의 지휘에서 이탈, 독자적 노선을 취하는 쪽으로 간다.

따라서 國共合作 이후 1927年 黨이 와해될 때까지의 黨中央리더들의 政策決定패턴과 黨리더들의 革命運動의 行態의 패턴은 주요한 분석거리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共產黨은 共產主義리더들에게는 하나의 마음속에 추상화된 구조적 장치였었고 創黨 이후 1927年까지 공식적인 黨代表會合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黨章에 의하면 初期 中共黨은 政策決定과 執行에 있어서 民主集中制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陳獨秀는 기본적으로 黨의 民主的方式의 운영과 黨리더들은 각자 자기가 위치한 社會 각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 양태는 다양하다. 國共合作 이후 몇 가지 특이한 리더들의 活動패턴을 예시해 보면, 첫째, 黨리더들은 國共合作하에서 여러 階級과 階層의 애국운동을 共產黨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조종해 나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들은 共產主義理念보다 外勢로부터의 해방투쟁을 내걸어서 靑年知識層, 勞動者, 農民 그리고 軍人들의 단합을 도모한 다음, 데모를 주동하고, 이 데모과정에서 적극적 行動家들을 파악한 후 그들을 共產黨과 靑年團에 끌어들었다. 특히 1924年 새로이 들어선 廣東政府가 (특히 廖仲愷에 의해) 노동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그 활동은 더

38) Xenia Joukoff Eudin and Robert C. North, *Soviet Russia and the East, 1920~1927: A Documentary Surve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57), p. 151, 英文번역에서 再引用.

욱 강화되었다. 1925年 5月 廣東에서 54만 노동조합원을 대표하는 166개 노동조합의 281명의 代表들이 참석한 第2次 全國勞工大會가 열렸을 때 民族解放鬭爭을 내세우면서, 共產黨指導部 民族聯合勞動組合이라는 전국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다. 이어 5·30事件이 발생되자 反外國人感情과 분노를 최대한 활용하여 共產黨리더들은 그들의 지배하에 上海總工會와 學生聯合 및 商人組合代表들을 결합하여 「工商學聯合會」를 결성한 후 각종 테모·파업 등을 주도해 나갔다. 그 결과는 1925年 5월에 1천명 정도였던 공산당원이 6개월 후에는 1만명으로 증가될 수 있었고, 社會主義青年團 회원도 같은 기간 동안에 2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났었다.³⁹⁾ 이러한 조직경험은 1930年代 이후의 관련 리더십 테크닉의 개발과 적용에 크게 공헌한 역사적 경험인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黨리더들이 어떻게 당시의 소위 프롤레타리아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었으며 그들을 黨이 目標로 하는 방향으로 동원시켜 나갈 수 있었는가에 관련된 테크닉의 개발·적용에 관한 活動이다. 당시의 프롤레타리아 대부분은 文盲者들이었으며 그 出身地域이 다양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전통적으로 勞動지도자와 청부업자들에게 예속적이었다. 더우기 당시 농촌에서의 이농에 따른 潛在勞動力의 과잉공급과 여성노동인구의 증가추세는 특히 스트라이크를 조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共產黨리더들은 西歐化된 部類, 傳統固守一般層, 中產階級出身, 교육받은 青年層 등을 동시에 연계시켜 나가야 했고, 이를 위해 개발한 테크닉이 학교 혹은 學習俱樂部의 조직운동이었다. 青年知識人이 주가 된 黨리더들은 鐵道周邊마을, 광산촌 및 勞動者집단거주지 등에 야학(Spare-time School)과 學習俱樂部를 조직하고 이들 노동자와 친해진 후 이들 중 야망있는 노동자들을 세뇌시키는 한편, 이들 노동자들의 불평을 파악했던 것이다. 이들은 다시 스트라이크를 조종함으로써 노동자들과 심리적 유대를 견고히 했고 일종의 師弟關係의 細胞網을 형성해 나

39) Wilbur & How, 前掲書, pp. 319~321.

갔다.⁴⁰⁾

共産黨리더십은 이러한 테크닉을 심분활용하여 中國의 전 프롤레타리아를 産業勞動組合의 네트·웍에 결집시키려 했던 것 같다. 어쨌든 1927년 중반까지의 몇년 사이에 이들 소수의 靑年知識人들의 맹렬적 활동결과에 의해 근 300 만명의 회원을 관장하는 수백개의 각종 勞動組合과 聯合團體 및 전국적 조직체들을 설립했거나, 침투해 들어갔거나,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靑年指導者들 중에는 鄧啓夏, 張國燾, 何孟雄, 李維漢, 李立三, 劉少奇 등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발탁되어 새로운 黨리더로 변신한 勞動運動家들로는 蘇兆微, 陳郁, 鄧發, 楊殷(이상 선언노조), 向忠發, 羅登賢(부두노조), 許白昊, 孫良惠(방직노조) 그리고 陳雲(인쇄노조) 등이다.⁴¹⁾

그러나 이러한 공산당의 성공적 활동은 國共合作下에서 國民黨의 國民革命戰略, 즉 反帝運動을 중시한 정책에 편승하여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성장의 배후에는 그 방대한 조직기반의 내적인 허약함이 있었음에도 共産黨지도부의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과신과 이에 따른 국민당의 우려를 자아내고 급기야 1928년부터 처참하게 와해되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세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黨리더들에 의한 農村戰略과 活動이다. 國共合作初期에 國民黨은 제국주의는 농촌에서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농민들은 보수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農民을 民族革命의 주체세력으로 간주하지 않았었으며, 共産黨의 中央리더십 또한 農民勢力의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었으나, 산업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했고, 農民을 당장의 主革命勢力으로 간주한 자는 오직 李大釗과 毛澤東에 불과했다. 따라서 創黨初期인 1922年과 1923年에 있었던 조직적인 農民運動으로는 廣東出身인 彭湃에 의한 海豐(廣東省 동부지역)에서의 農民協會 조직·운용에 불과하다. 이 협회들은 농민들간의 상호협력

40) Jean Chesneaux, *The Chinese Labor Movement, 1919~1927*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8), pp. 48~148.

41) *Ibid.* 와 John W. Lewis, ed., 前掲書, p. 57.

과 비공식중개활동을 맡았고 농촌시장을 감독하면서 社會主義의 理想을 전파해 나갔었다. 그러다가 1924年 1月 國民黨 1全大會 이후에 廖仲愷의 지지에 힘입어 廣東地域外로 확산되고, 1927年까지는 湖南, 湖北 및 江西地域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다. 1926年 4月에 第1次 農民大會가 열려 100만명을 대표하는 대표가 모였었고, 1927年初 湖南省에만도 130만명의 農民協會 會員이 가입되기에 이르렀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전개과정에서 가장 팔목할만 한 것은 「農民運動講習所」의 설치·운용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을 통해 青年活動家(學生과 農民)등을 양성했고 이들은 다시 농민운동을 주도해 나갔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로선 彭湃와 毛澤東 外에 羅綺園, 院嘯仙, 李國珍, 吳振民 등이었다.⁴²⁾

그런데 중요한 것은 黨지도자들이 당시 農民運動을 주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들은 農村社會構造의 복잡성과 지방세력에 관하여 관찰하고 배웠으며, 小집단간의 반목, 그리고 농민들의 보수성에 대하여 값진 경험을 얻었던 것이다. 특히 1927年初 數週에 걸친 농민운동의 조사끝에 毛澤東은 그 유명한 「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를 기록했는데, 이 때 毛澤東이 농민들의 투쟁정신에 대한 인지는 후일 그의 농촌에 기반을 둔 革命戰略을 창안하여 최대한 활용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共產黨中央에서 최초로 共產黨 자체에 의한 農民과 勞動者의 武裝을 거론하였던 것은 1926년에 共產黨을 강타한 장개석에 의한 「3·20事件」에 대한 대응반응으로서 張國燾에 의해 주장되었을 때다. 그러나 당시 스탈린의 지령을 이행하던 Borodin은 時宜가 맞지 않음을 들어 이를 묵살해 버렸었다.⁴³⁾ 그러다가 1926年 7月 12日 中共黨中央擴大會議의 決定에 따라 8월에 中共中央에 의한 독자적인 軍事部가 설치되어 張國燾가 초대 부장이 되고, 9월에 周恩來가 2代 軍事部長이 된다. 周는 군사사무의 효율

42) John W. Lewis, ed., 前掲書, pp. 57~58.

43) Chün-tu Hsüeh, ed., 前掲書, p. 438.

성 강화를 꾀하였으나 그 휘하의 순수 共產黨所屬軍은 葉挺이 이끄는 1개의 獨立聯隊 정도였다. 따라서 中共軍事部는 1927년에 발생하는 일련의 봉기에 대한 무력지원적 차원에 머무를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初期黨리더십의 行態의 특징은 黨리더들이 경험한 軍事的 武力에 관한 것과 暴力에 익숙해져 나갔었다는 경험이다. 創黨初期리더십의 구성원들은 거의가 理想主義者들로서 1925년까지는 공개적으로 暴力의 중요성을 주장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우기 1925년 이전에 黨에 入黨한 자로서 軍事訓練과 지휘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朱德과 葉挺 정도였다. 그런데 國民黨의 黃寶軍官學校에서 周恩來가 政治主任을 맡게 되고, 聶榮臻, 陳毅, 그리고 輝代英 등이 政治教官職을 맡으면서 사관생도들을 공산당에 끌어들이게 된다. 黃寶와 武漢分校의 사관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생들이 共產黨에 가입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수백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⁴⁴⁾ 그들 중 최소한 20명 정도가 1936년까지 게릴라운동을 이끌어 나갔으며, 그들 중에는 張雲逸, 賀龍, 李富春, 葉險英 등이 1927년 이전에 입당한 자들이고, 彭德懷는 1928년에 입당했었던 자다. 결국 이들과 이들 휘하의 부하들이 후일 紅軍의 주축이 된다.

그러나 共產黨리더들의 個別的 經驗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은 農民蜂起過程을 통해서 暴力과 對應暴力의 연속속에서 살상과 파괴를 체험하게 되며, 노동운동과정에서 또한 폭력을 응용하고 접하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1927년 일련의 蜂起過程(武漢·南昌·長沙·廣東 暴動)에 따른 경험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27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37,985명이 國民黨政府에 의해 살상당하고 32,316명이 구속되었다 한다. 이 중 湖南에서만 20,000명이 처형되었고 1928년 1월과 8월 사이에 27,699명이 처형되었다고 한다.⁴⁵⁾

44) John W. Lewis, ed., 前掲書, p. 59.

45) Harold Isaacs, *The Tragedy of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1), p. 296.

결국 廣東교문이 분쇄되고 共產黨세력이 지리멸렬됨으로써 당시까지 革命主導勢力으로 되어 온 中國의 도시중심 프롤레타리아세력은 일단 主導勢力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1928年 4月 井崗山으로 도망한 毛澤東은 “革命鬭爭은 武力鬭爭이다”라고 보면서 1924~1927의 共產黨의 敗北를 獨自의 軍隊를 보유하지 못했었음에 돌리고, 紅軍의 배양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음은 역사상식이 되어 있다.⁴⁶⁾

결론적으로 30年代에 들어서서 中國共產黨이 본격적으로 革命에 있어서의 武力과 暴力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黨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1920年代의 경험에 대한 반발적 요인이 큰 것이라 하겠다.

VII. 結 論

中國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을 初期에 이끌어 나간 中共黨 領導人物들과 이들에 의한 黨리더십의 性格과 特徵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本稿의 序論에서 밝힌 論點에 대한 解答을 導出·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初期 中共黨리더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최고의 젊은 知識層으로서 그들의 民族主義的 정열은 현실타파를 통한 新中國의 回生이라는 理想主義的 命題와 결합하여 투쟁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만들었다.

(2)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수용과정에서 추상적 이론을 구체적 信念體系화시키는에는 리더들 중의 리더였던 陳獨秀와 李大釗였으며, 黨리더들의 이러한 수용과정에서의 경험은 創黨이후 1927年 黨이 거의 와해될 때까지 수많은 政策的 論爭과 革命戰略채택에 있어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黨中央리더십의 권위를 保持할 수 있게 만들었다.

(3) 初期의 共產黨은 外形의 機構·組織이라기 보다는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共產黨리더들의 불안, 좌절 그리고 투쟁적 성향을 순화시켜주는 심

46) Mao Tse-tung, "Why Can China's Red Political Power Exist?" (Oct. 5, 1928), in *Selected Works*, I., pp. 67~68.

리적 彼岸處로서의 추상적 구심적 역할을 했다.

(4) 최소한 創黨初期의 黨리더쉽은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지 않은 主體의 行動體였다. 그러나 國共合作이후부터 共產黨 자체의 상대적 왜소감, 그리고 재정적·정치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코민테른의 影響力 強化에 순응해 나간 결과로 보인다.

(5) 黨의 指針과 規律 그리고 엄격한 黨리더쉽의 충원과정은 小數에 의한 黨리더쉽體系임에도 엄청난 규모와 심각성을 띤 共產主義運動을 가능케 하였고 黨리더쉽의 결속을 유지케 하였다.

(6) 創黨리더들의 黨運營에 있어서는 黨內民主主義와 分權的 利點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黨리더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활동을 고무하고 유도할 수 있었다.

(7) 中共黨리더들은 黨指導者數의 열세와 組織次元에서의 취약점(例: 黨中央의 地域運動에 대한 지원결핍, 교통·통신시설의 미비)을 리더쉽 테크닉을 통해 해소시켜 나갔다. 즉 勞働者, 學生, 기타 大衆組織과 團體의 組織 및 運用과 이들의 聯合體 構成, 夜學과 學習俱樂部의 운용, 농촌에서의 講習所의 운영, 宣傳冊子의 발간과 유포, 軍事將校 및 候補生의 포섭 등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이러한 創黨初期의 黨領導人物들의 思考와 行動, 그리고 黨리더쉽運動의 特徵은, 성공적인 것(例를 들어 리더쉽 테크닉)은 후일에 그 대로 복제·활용했고 失敗의 원인이 되었던 것(例를 들어 農民의 革命主體勢力으로서의 역할 不認定과 都市中心革命 및 코민테른指示에 대한 맹종)은 교훈으로 돌려 새로운 理論體系·戰略戰術의 개발에 참조해 나갔음을 지적해두려 한다.